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정책현장탐방

- 여성인권운동의 현장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 대표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인권운동의 현장 :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욱 젠더정치연구소 대표

1. 젠더정치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 연구소로 전환 되면서 현 정치실태 및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한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의 경우 요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해 복기하고 올해 지방선거가 대중에게 더 다가갈 수 있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모색 중입니다. 부대표의 경우 남녀동수 개헌에 대한 기자회견 등을 청와대 앞에서 열고 적극적 조치의 도입,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철폐, 선출직 및 임명직에 대한 남녀동수 권리보장을 주장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젠더정치연구소에서는 연구와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research activism을 표방하고 있으며 제도권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젠더정치연구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왜 유독 정치분야에서는 한국 여성들의 활약이 어려울까요?

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항상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있었던 전족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도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늘 일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고 여성의 근면 성실함이나 노동도 늘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율이나 노동시장 참여율 등 공식적인 통계로 잡히는 수치는 남성에 비해 낮지만 사회적 경제나 시민단체 등에서 여성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인정이나 공적 대표성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가 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성들의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를 받아줄 정치적 구조는 여전히 남성위주의 공고함을 유지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기존에 여성들이 정치 주변부에 머물고 남성의 필요에 따라 호선되던 방식은 이제 미투 운동을 통해서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나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이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였던 피해의 경험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여성도 동등한 대화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3.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선출직에 후보자로 나서고 당선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선거구제를 2인 위주(양당 체제)로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요 정당에 굳이 매일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또한 여성의 의무공천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도 여성이 후보로 공천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즉 “보여지는” 직에 대한 여성의 공천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시 여성 비율을 10%만 확보하더라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당에서는 여전히 준비된 여성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는 정당의 의지가 필요한 순간이 왔다고 봅니다.

4. 남녀동수 헌법은 무엇이며 왜 남녀동수 헌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한가요?

남녀동수는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남녀동수에 대한 사회적 반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녀동수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고 과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즉 남녀동수를 통해서 남성화된 정치에 균열을 내고, 정치는 의례히 남성들이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자는 것입니다. 기존에 남성화 되어 있던 정치를 약화시키려면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더 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성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 남녀동수를 통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남녀동수 헌법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둘째,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선출직과 임명직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의 당헌당규를 살펴보면 여성의 30% 공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은 약합니다. 실제로 각종 위원회 구성, 교수 임용, 공기업 인사행정 등에 있어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려고 할 때도 명확한 헌법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하위법은 사문화되고 수사에 불과한 강령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남녀동수 헌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녀동수 헌법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남녀의 평등권을 천명하고 관련 하위법에 힘을 실어줄 때 실제 우리의 일상과 생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젠더정치연구소에서는 남녀동수 헌법과 관련하여 청와대, 각 정당의 대표, 국회의장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범여성계가 함께 남녀동수 헌법의 필요성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5. 이번 지방선거나 남녀동수 헌법 이외에 한국의 여성정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여성정치인은 여성을 대표하여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지요. 특히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성정치인의 리더십이 비정치인 여성에게 작동하고 있는 효과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여성정치인들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더 방점을 찍었다면 미투 운동을 통해 이제는 여성정치

인들이 여성의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이를 위한 학습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6. 이진옥 대표께서 그리는 젠더정치연구소의 미래 모습과 과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젠더정치연구소에서 기존의 정치에 대한 혐오나 왜곡된 인식을 걷어내고 페미니스트적 해석을 통해 정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연대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든든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성들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 속한 단체에서도 본인이 중간관리자가 됐을 때 혹은 상급자가 됐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그 곳에서 나 자신과 내 동료들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는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모여 더 큰 정치의 물줄기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